

코스피는 5000 찍었는데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장중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해 '코스피 5000 시대'의 문을 열었다. 다만, 5019.54를 찍은 후 점차 상승 폭을 줄여 전날보다 0.87% 오른 4952.53으로 마감했다.

경제는 -0.3% 역성장 쇼크

연초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넘기면서 '코스피 5000 시대'의 문을 열었다.

22일 코스피는 장중 5019.54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 5000선을 넘어섰다. 1983년 1월 4일, 종합주가지수 122.52로 시작한 코스피가 43년 만에 5000 시대를 맞았다. 지난해 6월 4일 '코스피 5000'을 내걸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57거래일 만이다. 다만 이날 종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전날보다 0.87% 오른 4952.53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 8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개장 직후 5000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코스피 상승세는 뜨겁지만 반도체 등에 지나치게 쏠린 '천수답(天水沓)' 구조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2700선에서 5000까지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두 종목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에서 38% 수준으로 올랐다. 이날도 코스피 상승분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83%에 달했다.

코스피, 사상 최초 5000 터치 차익 실현 쏟아지며 4952 마감



하지만 코스피가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상승 종목은 전체(948개)의 56%(531개)에 그쳐 소외된 종목이 적지 않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특정 몇 종목으로의 쏠림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이 꾸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의 내용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창렬·주희연 기자 기사 A2면

4분기 성장률, 3년 만에 최저 소비 쿠폰 반짝 효과 사라져



한국 경제가 작년 4분기(10~12월) 예상과 달리 역(逆)성장하는 충격을 받았다. 22일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한은 전망인 0.2%를 크게 밑돌았다. 감소 폭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권에서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이 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이날 "3분기 1.3%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 전망보다 약화된 건설 경기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안 좋은 모습

있었다. 민간 소비는 13조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을 집중적으로 배포했던 3분기에 1.3%로 살짝 반등했지만, 4분기는 0.3% 증가로 둔화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3분기 소비 증가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따른 일회성 반등에 가까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4분기 건설투자는 -3.9%로 크게 꺾였고, 설비투자도 -1.8%로 감소 전환하면서 투자 부진도 심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1.0%로 코로나 때인 2020년(-0.7%) 이후 최저였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0.97%로 사실상 0%대 성장이다. 이동원 국장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제조업 부분의 지난해 성장을 기여도는 0.6%포인트였다"고 했다. 반도체 등을 빼면 한국 성장률은 0.4%쯤을 기록했을 것이라 뜻이다.

'1%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집계로 보면, 작년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인 3.3%보다 낮은 편이다. 선진국 평균(1.7%), 미국(2.1%), 유로존(1.4%), 일본(1.1%) 등에도 못 미친다. 김신영·김성모 기자 기사 A3면

현대차 노조, 로봇과 전면전 "공장에 단 1대도 못 들인다"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2일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전격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사진)'를 겨냥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아틀라스 효과'에 환호했지만, 노조는 일자리 위협을 우려하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소식지에서 "해외 물량 이전과 신기술 도입(로봇 자동화)은 노사 합의 없는 일방통행"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평균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의 인건비는 연 3억원이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하므로 자본가에게 좋은 명분(?)이 된다"며 "현대차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틀라스 가격은 대당 2억원 안팎, 연간 유지비는 대당 1400만원 수준이라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최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7곳 임직원 평균 인건비는 1억3000만원, 근무 시간은 하루 8~10시간이다. 휴머노이드가 본격 투입되면 사람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우려다.

이정구 기자 A2면에 계속

아틀라스 로봇 연간 유지 비용 1400만원 수준

노조 "합의 없인 현장 투입 안돼"



선거 앞두고 민주·조국당 합당 추진

정청래 "선거 같이 치르자" 제안 조국 "국민 뜻 따라서 결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여권 통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지난 대선을 같이 치렀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당 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합당 제안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

서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주도해 2024년 총선 직전인 3월 창당 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만 12석을 얻었다. 이번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174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는 것이다. 노석조 기자 기사 A5면

八面鋒

민주당, 선거 날 넘어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합치자". 지지율 압도하고 있는 여권은 뭉치는데 어떤?

검찰 간부 인사에서 '대장동 할스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 법무부연수원으로 좌천. 한국 검찰관 'FAFO' 인사?

트럼프, 유럽 겁박한 '그린란드 관세' 철회. 파국 피했지만, 동맹에 각인된 '美 불신'은 지워지지 않을 것.

2026年 國民에게 株式을 公募합니다

AI 특이점에 가장 특화된 학습모델(Core Deep Learning)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대표 AI가 될 **Pumasy AI**에서 株式을 공모합니다.

공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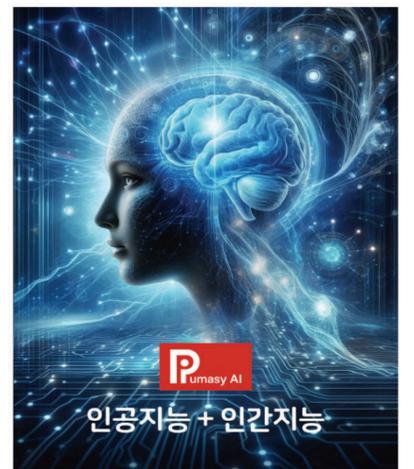
- 발행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푸마시에이아이
 -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일: 2025년 12월 26일 (금)
 - 모집 증권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12,000주
 - 예상 가액: 15,000원
 - 청약 기간: 2026년 1월 19일 (월) ~ 1월 23일 (금)
 - 환불 및 주금 납입일: 2026년 1월 27일 (화)
 - 청약금 납입계좌: 국민은행 001590-17-585451 (주)푸마시에이아이
- ※ 청약금 입금 전 반드시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청약관련 사항

- 청약방법: 당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홈페이지 (www.pumasy.com) 신청
-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한 실명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청약 증거금: 청약 금액의 100%로 함
- ※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되며 이자는 없음
- 청약 수량: 1인당 최소 청약 수량은 200주, 최대 청약 가능 수량은 10,000주(청약 단위는 10주)
- 청약 취급처: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비201-122호 (주)푸마시에이아이 경영지원팀 전화: 02-2055-1152

배정 및 환불 관련 사항

- 배정 방법: 초과 청약 시 청약 증거금 입금 선착순으로 배정함
- ※ 공모 후 청약 주식 수가 공모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 증거금 입금 선착순에 따라 배정이 되며 최후 순위 배정자의 경우 청약 주식 수보다 적은 수의 주식만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배정 공고 및 초과 청약금 환불 통지: 2026년 1월 27일(화)
- 환불 및 주금 납입 기일: 2026년 1월 27일(화)
- ※ 주식청약금 및 초과 청약금 환불 등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7조 3의 2조를 반영하여 당사는 한국 증권금융회과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청약 증거금에 대하여 반환 전까지 초과 청약금 인출 목적 외의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 청약금 환불일에 청약 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 될 예정입니다.
- 관련 공시 서류는 금융감독원 사이트(http://krt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 인간지능

전화문의: (02) 2055-1152



주식회사 푸마시에이아이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비201-122호

www.pumasy.com